

北 빠진 '5자 회담' 급물살타나

북핵 6자회담이 장기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뺀 나머지 5개국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5자회담' 구상이 외교계에 회자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5자회담에 대해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국 정부가 이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 5자간 협의를 통해서 북한에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등

정부 "한미 공조 바탕 중·러와도 협의중" 中, 北 고립 의식 5자회담 부정적 '변수로'

이따라 도발행위를 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협상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5개국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일해진다. 그리고 미국이 5개국 협의에서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 양자협상을 하는 방안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특히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5자회담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중국과 협의를 진행했던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중국은

6자회담의 틀이 깨질 수도 있는 5자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중국을 방문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5자회담에 대한 우리측 아이디어를 중국측에 설명했지만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는 북한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중국으로서 5자회담보다는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선

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이 조만간 고위급 특사를 평양에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마음을 돌릴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계에 돌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협상에 복귀하지 않고 추가도발 카드를 꺼내들 경우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 압박에 동참하기 위해 5자회담과 같은 새로운 이벤트에 가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달 중순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주목된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모이는 자연스러운 이 외교이벤트를 활용해 '5자회담'이 화려했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예멘 군중들이 17일(현지시간) 예멘 북부 사다 지역에서 외국인 9명을 인질로 잡고 그중 3명을 살해한 테러집단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예멘에서 납치·살해된 고(故) 엄영선(24·여)씨의 시신은 19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다. 예멘 국영TV 캡처. /연합뉴스

남북 오늘 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대표단 역류 근로자 조속 석방 등 요구

남북이 19일 오전 10시 개성 남북 경제협력사무소에서 제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갖는다.

4월21일 '개성접촉'과 지난 11월 1차 실무회담에 이어 개성공단과 관련한 3번째 남북 당국간 회담인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역류 근로자 유무 문제를 포함한 공단 체류자의 신분안전 문제와 북한이 요구한 근로자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 수석대표인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와 김기용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기획총괄팀장 등 우리 대표단 10명은 당일 오전 8시 45분경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한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앞서 두차례 회동 때와 마찬가지로 김영탁 대표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각각 나설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지난 11월 회담에서 1차로 교환한 양측 입장제 대한 검토 결과를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1일 제기된 북측 요구 사항 중 근로자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완납된 토지 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려달라는 등 기존 계약 및 합의의 변경을 요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서 두차례 회담때와 마찬가지로 역류 80일을 넘긴 유체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측 관심사인 남북 출입, 체류 공동위원회 설치,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 해결 등을 북에 촉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정은, 후진타오 면담때 정남 동석"

日 아사히신문 보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부상한 3남 정운씨가 이달 10일 전후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을 때 정남이 정남씨도 동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앞서 이 신문은 정운씨의 중국 방문설을 16일 보도했고,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신문은 김 위원장과 가까운 북한 소식통과 베이징의 북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정남씨는 후진타오 주석과 면담이 있어 소개자로서 측근과 함께 동석했다"고 전했다.

북한 소식통은 "후계자는 정운" /연합뉴스

씨며 북한 지도부가 일치해 지지하고 있음을 중국측에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정남씨도 유력한 후계자 후보였으나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씨로부터 후계자가 될 의사가 있느냐는 타진을 받았지만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정남씨는 조선노동당이나 군의 직책에 취임하지 않고, 마카오에 살면서 비즈니스에 관여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의 파이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씨가 중국을 방문한 10일 전후 정남씨도 마카오에서 항공편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이란 시위, 텐안먼 사태 재연 우려"

헤럴드 트리뷴지 보도

대통령 선거 이후 확산 일로로 치닫는 이란의 시위 사태가 중국의 텐안먼 사태와 같은 유혈 사태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터넷서널 헤럴드 트리뷴(HHT)이 18일 보도했다.

이번 시위 사태는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지난 1999년과 2003년 학생 시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했다는 진단이다.

IHT는 첫째 이번 시위는 학생만이 주도 세력이 아닌 대규모 시위로 확대됐다는 점, 둘째 미르 호세인 무사비 전 총리라는 구심점이 존재하는 점, 마지막으로 지역적 이슈가 아닌 전후 정남씨도 마카오에서 항공편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드 하타미 전 대통령이 온건 성향인 반면, 무사비 전 총리는 80년대 혁명의 가치를 강조했던 골수 좌파 성향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변수다. 문제는 이란 정부가 현 소요 사태를 어느 수준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국 시위의 종착역은 중국의 텐안먼 시위와 같은 대규모 유혈사태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99년 반정부 학생시위에 가담한 사진이 이 코노미스트에 게재돼 갖은 고초를 겪은 끝에 미국으로 망명한 아마드 바테비(31)는 "모든 사회는 각자 고유의 자유,민주주의의 버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이란의 국민은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적인 대통령 제도'와 타협할 수 없는 이란의 정치문화가 배경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후 6분이면 뇌에 부정적 영향"

음주 후 6분이면 뇌세포에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미국의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의 아르민 빌러 박사는 맥주 3잔과 포도주 2잔에 상당하는 알코올을 마시고 6분이 지나 할증 알코올 농도가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0.05~0.06%에 이르면 뇌세포에서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우선 뇌는 평소처럼 음식 섭취로 만들어진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고 알코올 분해에 의해 만들어진 당분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빌러 박사는 말했다. /연합뉴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력있는 학생은 합격자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 10명중 7명이 김영출신 합격자 =

7월 합격이 보이는
면입영어 합격강좌
(신규입문반/ 적응과정반/ 문법, 독해특강/ 적응과정반)
문법반/ 독해반/ 사정반/ 어휘반/ 어법반/ 문법, 지리, 종가제, 문장영어, 문법+독해

편입! 그것은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대학면입은 역시 "김영" - www.kimyoung.co.kr

2010년 KY합격지수로 나의 합격가능대학을 예측하라!

대학면입의 성공! 여름방학을 잡아라

광주분원 김영면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대학면입이란?

전문대졸입(예정)자
4년제 대학 2학년수료(예정)자라면 누구나 3학년으로 편입가능

생원권대학 전문대비반 TOP-CLASS
자연계 편입을 위한 편입수학 개설!

도전하십시오! 개강 7월 1일

메가박스

구. 린원대극사거리 ☎1544-0600

M관	거북이 달린다 (154)	최고급관
2관	박들관이 살아있다2 (전제)	
3관	블러드 (184)	
4관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154)	
5관	신주쿠사건 (184)	
6관	여고괴담5: 동반자살 (154)	
7관	펠렘123 (154)	
8관	거북이 달린다(154)/드래그 미 투 헬(154)	
9관	볼룸 형제 사기단 (124)	

• 이프류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과 이마트 사이) 해설점 (우역회관옆편)

1관	볼룸 형제 사기단 (124)	
2관	블러드(184)/드래그미투헬(154)/펠렘123(154)	
3관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154)	
4관	박들관이 살아있다2 (전제)	
5관	신주쿠사건 (184)	
6관	아스테릭스: 미션 올림피게임 (124)	
7관	거북이 달린다 (154)	
8관	마더 (184)	
9관	여고괴담5: 동반자살 (154)	
10관	거북이 달린다 (154)	

• 상무점 전관 좌석 교체!! 1588-7941
계속하고 편안한 좌석에서 영화의 감동을 느껴보세요

하미 시네마

관대점 ☎www.haminema.co.kr / 1588-9120

관대후로 하미포레스 ☎ 267-7777

1관	천사와 악마 (154)	
2관	거북이 달린다 (154)	
3관	7급공무원(124)/드래그 미 투 헬(154)	
4관	펠렘123 (154)	
5관	거북이 달린다 (154)	
6관	마더 (184)	
7관	박들관이 살아있다2 (전제)	
8관	여고괴담5: 동반자살 (154)	
9관	볼룸 형제 사기단 (124)	
10관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154)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이동통신사 OK 카쉬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69-6767 • 하미 빌딩점 262-0825
• 하미 팝스점 261-6080 • 하미 당구점

씨너스 전대

색깔있는 영화시청 ☎www.cinusa.co.kr / 1544-0070

북구본점소 건물편 ☎ 511-1000

1관	마더 (184)/드래그 미 투 헬 (154)	
2관	터미네이터 (154)/펠렘123 (154)	
3관	박들관이 살아있다2 (전제)	
4관	신주쿠사건 (184)	
5관	볼룸 형제 사기단 (124)	
6관	여고괴담5: 동반자살 (154)	
7관	거북이 달린다 (154)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독자 사우나(오전5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제일 시네마

세무7점 ☎www.primusinema.com/www.jeildinema.co.kr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

1관	여고괴담5: 동반자살 (154)	
2관	마더 (184)	
3관	박들관이 살아있다2 (전제)	
4관	거북이 달린다 (154)	
5관	신주쿠사건 (184)	
6관	펠렘123 (154)/터미네이터 (154)	

• 무료주차 3시간 (장우, 세무소, 세무, 세무, 세무)
• 단, 힐링룸 구내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